

이상적이 청나라 문인들에게 받은 편지 모은 《해린척소》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15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조선시대에 외국에 가장 많이 드나든 사람들은 역관이였다. 그 가운데 청나라에 가장 많이 드나든 역관이 바로 이상적과 그의 제자 오경석이다. 이상적은 12번이나 중국에 드나들었는데, 스승 추사의 추천으로 많은 문인들을 만나면서 명나라 문단에서 이름을 날렸다. 이상적은 자신을 존형·대인이라고 존중하던 청나라 문인들의 편지를 모아서 10권으로 장정하고, 편지첩 이름을 《해린척소》라고 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사신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활발했다. 신라시대에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해상무역 세력도 있었고, 최치원으로 대표되는 견당(遣唐) 유학생도 많았으며, 혜초로 대표되는 승려들이 당나라를 거쳐 인도까지도 유학을 갔다. 고려 시대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원나라 북경에 가서 공부하며 그곳 문인들과 교류했다. 이 시대 선비들은 당나라나 원나라에서 실시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했으며, 그 나라 벼슬까지도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가 끊어졌다. 공식적인 외교사절 말고는 아무도 국경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조선이 세계로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명(淸)나라뿐이었다. 좁은 조선을 답답하게 생각했던 학자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명(淸)나라에 다녀오고 싶어했으며, 자제관공이라는 비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사신 일행을 따라가 외국을 구경했다.

시와 골동 서화에 뛰어나 청나라 문인들과 교류한 이상적

당시 외국에 가장 많이 드나든 사람들은 역관(譯官)이었다. 사대부들은 일생에 한두번 사신이 돼 중국을 구경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역관들은 차례가 오는 대로 몇번이고 나갔다. 그 가운데 청나라에 가장 많이 드나든 역관이 바로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3~1865)과 그의 제자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다. 이상적은 12번이나 중국에 드나들었는데, 스승 추사(秋史)의 추천으로 많은 문인들을 만나면서 명나라 문단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골동(骨董) 서화(書畵)에 관심을 가져 그곳 문인들과 더 깊이 사귀었으며, 편지를 통해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시와 골동 서화를 논

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았다.

조선에서는 역관을 잡직(雜職)으로 여기고 천대했지만, 조선의 신분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시 잘 짓는 역관을 높이 여겼다. 사대부들은 체면과 격식을 차려 그곳 문인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수 없어 직접 의사소통하지 못했다. 그나마 중국에서는 필담으로 통했지만,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기는 힘들었다. 그에 비하면 역관들은 의사소통이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성월에 정통해서 시도 자연스럽게 지었다. 조선 사대부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던 이상적이 청나라 문인들에게 존형(尊兄)·대인(大人)·각하(閣下)라고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연칭도서관에 소장된 《해린척소》의 첫장은 '우선존형대인각하'(藕船尊兄大人閣下)라는 극존칭으로 시작된다. 좁은 조선에서 차별받던 이상적이 자신을 이토록 존중하던 청나라 문인들의 편지를 곱게 간직하다가 책으로 장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는 이 편지들을 모아서 10권으로 장정하고, 편지첩 이름을 《해린척소(海隣尺素)》라고 했다. 그의 서재 이름이기도 한 해린(海隣) 두 글자는 당나라 시인 왕발(王勃)의 시 〈부임지 촉주로 가는 두소부에게(杜少府之任蜀州)〉의 한 구절인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하늘 저 끝도 이웃과 같으리”(海内存知己 天涯若比隣)에서 따왔다.

“세상 모두가 이웃(海隣)”이라는 생각은 《논어》의 “천하가 다 형제”(四海之內 皆兄弟也)라는 구절에서 나왔는데, 이상적은 멀리 중국에 사는 문인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고마워 서재 이름을 ‘해린서옥(海隣書屋)이라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편지첩에도 그 이름을 썼다. 척소(尺素)는 명주인데, 예전에는 명주에다 편지를 썼다. 그래서 《문선(文選)》에 실린 고시(古詩)부터 척소(尺素)는 편지라는 뜻으로 쓰였다.

미군공습 때 《해린척소》 원본 불타 없어져

이상적이 엮은 《해린척소》는 10권이었는데, 원본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추사 연구자였던 경성제국대 교수 후지츠카 지카시(藤塚隣)가 추사가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歲寒圖)〉와 함께 이 편지첩을 소장하고 있다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여름에 도쿄로 가지고 돌아갔다. 당시 도쿄는 미군 공습이 한창이었으므로, 〈세한도〉가

혹시라도 불타 없어질까 걱정했던 서재가 손재형(孫在馨)이 일본까지 찾아가 그 그림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청했다. 노환으로 누워 있던 후지츠카는 물론 거절했지만, 손재형은 두 달 동안이나 찾아다니며 졸랐다. 후지츠카도 그의 정성에 감동해, 12월 어느 날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세한도》를 넘겨줬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945년 3월 10일 미군의 공습 때 후지츠카의 서재가 폭격당해, 그가 소장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추사 유물과 함께 《해린척소》 원본도 불타 없어졌다. 다행히도 그 가운데 일부가 간송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해린척소》는 편지의 모범으로 여러 차례 필사됐는데, 현재 국내에 4종, 외국에 1종이 보고됐다. 이번에 소개하는 엔칭도서관 소장본까지 6종이 밝혀진 셈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10행 24자 58장본이 있고,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난언휘초(蘭言彙抄)》가 있으며, 고려대 도서관 신암문고(薪菴文庫)에 10행 20자 64장의 이용백(李容白) 필사본이 있고, 규장각에 10행 20자 64장본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고려대 소장본과 같은 계열이다.

외국에는 일본 텐리대(天理大) 이마니시류 분코(今西龍文庫)에 왕홍(王鴻)이 편집했다는 2책이 있는데, 이 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복사본으로 소장돼 있다. 엔칭도서관에는 10행 24자 62장의 상·하 2책이 소장돼 있는데, 위의 6종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으며, 필사 저본(底本)도 다르다.

원본과 대조하며 고친 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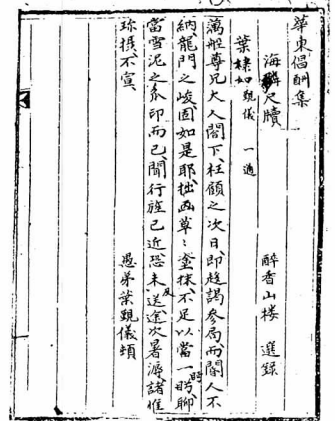
국내 소장본 가운데 가장 원본에 가까운 필사본은 고려대 소장본이다. 이 책은 오경석의 사위인 우청(又靑) 이용백(李容白)이 처남 오일재(吳日齋)에게서 오경석 필사본을 빌려 1885년에 필사한 것인데, 이용백 자신의 서(序)와 예언(例言)·목록을 덧붙이고 본문을 필사했

“엔칭도서관에 있는 필사본은 10행 24자 62장의 상·하 2책이어서, 분량만으로도 다른 필사본의 갑절이 된다. 56명의 편지 148통이 실려 있어 사람 숫자도 많으며, 이용백이 보고 베꼈던 오일재의 소장본에 없는 편지들이 추가됐다.”

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나 규장각 소장본은 모두 같은 내용인데, 서문이나 예언·목록이 없어 고려대 소장본보다 못하다. 고려대 소장본에 덧붙은 필사자 이용백의 서문에 따르면, 장요손(張曜孫)과 왕홍(王鴻)의 시는 분량이 많아 따로 1책으로 만들고, 나머지 (39명의 편지) 115통을 실었다고 했다. 규장각본도 역시 고려대 소장본과 같은 은우당(恩雨堂) 장본(藏本)을 몽화재(夢華齋)가 필사한 것인데, 39명의 편지 108통을 실었다.

엔칭도서관에 있는 필사본은 《해린척독》이라는 책 이름부터 분량

과 순서가 국내본들과 모두 다르다. 표지에는 《화동창수집(華東倡酬集)》이라고 했는데, 필사한 저본 자체가 다르다. 이 책은 10행 24자 62장의 상·하 2책이어서, 분량만으로도 다른 필사본의 갑절이 된다. 56명의 편지 148통이 실려 있어 사람 숫자도 많으며, 이용백이 보고 베꼈던 오일재의 소장본에 없는 편지들이 추가됐다.



19세기 조선과 청나라의 문화교류상을 보여주는 《해린척독》 첫장.

국내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백이 별권으로 만들겠다고 장운의 편지 10통과 왕홍의 편지 20통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이 책 본문 첫장에는 필사자를 “취향산루(醉香山樓) 선록(選錄)”이라고 밝혔는데, 그가 오일재나 이용백의 소장본이 아닌 원본을 보고 나름대로 골라서 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편지 보낸 사람을 집안 별로 묶어서 편집했는데, 예를 들면 반씨(潘氏) 5명을 차례로 편집하고 그 관계를 밝혔으며, 다른 집안도 그렇게 했다. 이름마다 그의 편지 숫자를 밝혔는데, 한운해(韓韻海)의 편지는 13통 가운데 7통을 뽑고, 《은송당집(恩誦堂集)》에 찬(贊)을 써준 공헌이(孔憲彝)의 편지는 23통 가운데 8통을 뽑았다고 한다. 왕홍의 편지는 52통 가운데 20통을 뽑은 것이며, 전체적으로 284통 가운데 148통을 뽑았다.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는 이 필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셈이다.

필사자는 원본에 가깝게 필사하려고 애썼으며, 여러 차례 대조했다. 이 책에는 원본과 대조과정에서 곳곳에 고친 흔적이 있으며, 앞부분에는 편지마다 ‘오본유(吳本有) 또는 ‘오본무(吳本無)라는 표시가 있다.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오일재(또는 오경석) 소장본과 대조했다는 뜻이다. 편지를 보낸 시기도 고증해서 밝혔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붉은 글씨로 주석을 덧붙였다.

한운해·반증위(潘曾瑋)·양부거(楊夫渠)·섭지선(葉志詵)·섭명풍(葉名澧)·왕헌성(王憲成)의 편지 경우에는 “원찰(原札) 또는 원필(原筆) 가장(家藏)”이라고 밝혀, 그의 집에 이들이 보낸 편지 원문이 있음도 밝혔다. 국내본에 실린 편지는 함풍(咸豐) 10년(1860)에 보낸 편지가 가장 늦어, 지금까지는 이상적이 1860년 이후에 《해린척소》를 엮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함풍 11년(1861)에 장요손과 왕홍이 보낸 편지가 실렸으며, 동치(同治) 원년(1862)에 왕홍이 보낸 편지, 동치 2년(1863)에 왕헌성이 보낸 편지까지 실려 있어, 이상적이 1865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필사본을 통해 19세기 조·청(淸朝) 문화교류가 더 깊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